

조선의 왕세자는 어떻게 공부했을까? - 세자시강원 전교현판

유새롬 | 118호 조선3실 | 18:00~18:30

조선시대 왕세자 교육은 왕도王道정치를 펼치는 올바른 국왕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국왕이 된 이후에도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왕세자는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서 국왕이 갖추어야 할 학문적 지식과 도덕적 자질을 익혔다.

왕세자의 일과는 어른께 드리는 문안과 끊임없는 공부로 이루어졌다. 왕세자가 받는 강의를 서연書筵이라고 하였다. 평상시 정규강의는 법강法講이라 하고 강의시간에 따라 조강, 주강, 석강으로 나누어졌다. 이 외에 비정규 강의로 낮에 하는 것은 소대召對, 밤에 하는 것은 야대夜對라 하였다. 세자가 어렸을 때는 『소학』, 『동몽선습』, 『효경』과 같은 기본서를 한 과목씩 배우는 단강單講으로 진행되었고, 기초를 습득한 후에는 경서, 역사서 등 두 가지 이상의 과목을 배우는 겸강兼講으로 진행되었다. 한 번 배운 과목을 후에 새로운 안목으로 복습하는 중강重講도 이루어졌다. 법강에서는 주로 경서를, 소대와 야대에서는 주로 역사서를 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조선 초기에는 사서오경, 『통감강목』이 주로 활용되었고 조선후기에는 훨씬 다양한 책이 교재로 활용되었다. 시강원 강의는 함부로 중단할 수 없었는데, 국가의례, 국왕과 왕비의 생일, 스승이 돌아가시거나 사형을 집행하는 날 등 휴강일이 정해져 있었다. 왕세자는 유학 교육뿐만 아니라 육예六禮(예의범절, 음악, 활쏘기, 말타기, 붓글씨, 수학)를 고루 익혔다. 특히 활쏘기와 말타기는 국왕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능이었다.

특히 영조는 학구열이 무척 높아 스스로 군사君師가 되고자 하였으며, 세자에게도 쉬지 않고 학문에 매진하기를 기대하였다. 영조는 서연을 자주 건너뛰는 세자를 훈계하기 위해 1745년(영조 21) 더위나 추위, 기일忌日 등에도 중단하지 말고 강학을 하라는 전교를 내렸다. 그리고 전교의 일부를 현판에 새겨 세자시강원에 걸어 세자들이 경계하는 마음을 갖길 바랐다. 조선의 왕세자 중에는 이런 압박감을 이기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쉽 없이 학문에 정진하여 군사를 실현한 국왕도 나타났다.



세자시강원 전교현판

도자기 문화재의 디지털 원형 확보

이해순 | 305호 백자실 | 18:00~18:30

문화재의 형태 및 색감을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디지털 파일로 구현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디지털 원형 확보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디지털원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재의 형태를 단색 덩어리로 나타내는 파일을 얻은 다음 그 표면에 문화재의 색상을 입혀야 합니다. 단색의 덩어리는 CT(computed tomography)와 정밀스캐너로 얻어진 데이터들을 병합하여 얻습니다. 문화재를 매우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찍고, 최대한 왜곡이 없는 부분만의 색상을 추출 및 병합하여 덩어리위에 얹어 놓습니다. 색상을 입히기 위하여 정밀 사진과 맵소스용 사진을 기초로 하여 UV맵을 그리는 과정을 맵핑(Mapping)이라고 합니다.

문화재의 디지털 원형 데이터를 확보하면 첫째, 문화재의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등 눈으로 볼 수 없는 세부까지 매우 정확하게 측정된 데이터를 얻은 것이므로 연구자료 로써 가치가 높습니다. 둘째, 치수검증이 가능하므로 문화재의 진본과 위작을 가려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문화재의 결실부 복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의 디지털 원형을 확보한 이후에 손상되고 없는 부분을 따로 모델링하고 3D 프린팅으로 실물화 시켜서 문화재의 복원에 활용합니다. 이런 디지털식 복원은 비접촉식으로 복원 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손상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고 복원부가 손상되어도 재출력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디지털 원형의 반전형태를 이용하여 포장박스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포장박스 제작 재료에 따라서 보조물 속의 이중 보조물을 만들거나 재난환경에 버틸 수 있도록 부피나 하중계산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전시나 교육 등을 위한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활용방법이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원형 확보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3차원 형상데이터, UV Map, 3차원 디지털 원형



제612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8년 11월 7일)

신라의 왕릉

윤상덕 | 108호 신라실 | 19:00~19:30

현재 신라 56명의 왕 중에 능의 위치가 알려진 경우는 38기에 달한다. 왕릉 위치가 이렇게 정해진 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고려 초의 기록인 삼국사기에는 왕릉에 대한 기록이 30기 있으며, 삼국유사에는 19기가 있다. 두 기록에 중복된 내용을 제외하면 총 34명의 왕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으며, 이 중 화장하여 산골한 4명을 제외하면 30명이다. 조선초인 15세기 후반의 자료에는 10기의 능에 대한 위치 기록이 남아 있어 당시까지 일반에 알려진 왕릉 수를 알 수 있다. 10기는 박혁거세릉, 미추왕릉릉, 법흥왕릉, 진흥왕릉, 선덕여왕릉, 효소왕릉, 성덕왕릉, 헌덕왕릉, 흥덕왕릉, 무열왕릉이다.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무덤의 위치를 잃어버렸음을 알 수 있다. 조선초까지 10기만 알려져 있던 것이 38기까지 늘어난 이유는 조선 후기 족보간행이 유행하면서 경주김씨와 경주박씨들에 의해 왕릉이 활발하게 비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선초의 기록에 있는 10기, 혹은 총 38기에 달하는 왕릉의 주인은 분명한가? 신라에는 백제의 무령왕릉처럼 무덤 안에서 묘지석이 출토되어 주인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확실하지는 않으나 상당히 믿을 만한 자료들을 하나씩 다져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신라의 왕릉 중에 무덤의 주인을 거의 확실히 인정할 수 있는 무덤은 무열왕릉(661년 매장)과 흥덕왕릉(836년 매장) 뿐이라고 생각한다. 무열왕릉은 무덤 앞에 귀부(龜趺)와 이수(螭首)가 남아 있으며 이수에는 태종무열대왕지비(太宗武烈大王之碑)라고 새겨져 있다. 흥덕왕릉에도 귀부가 남아 있는데 주변에서 ‘흥덕(興德)’이라고 새겨진 비 편이 수습되었다. 한편 문헌에 의해 비정된 것은 아니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발굴결과 왕릉으로 추정되는 무덤으로 황남대총 남분을 들 수 있다. 황남대총은 무덤의 규모에서 신라 최대, 남분과 북분으로 나누어 봐도 세 번째로 큰 무덤에 속한다. 또한 출토품도 질과 양에서 압도적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왕의 무덤이라는 증거는 크기와 부장품이 압도적인 규모라는 정황적인 증거이나 왕의 무덤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황남대총 남분의 주인공으로 학계에서는 내물왕, 실성왕, 눌지왕 설이 제기되었다. 어떤 왕인지 아직 여러 학설이 존재하나 아무튼 5세기 전반의 왕(마립간) 중에 하나의

무덤이라는 점은 일치한다. 내물왕부터 지증왕까지 마립간 시기의 무덤은 황남대총이 있는 대릉원 일대의 대형 무덤 중에 하나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최병현, 강인구 등 많은 연구자가 마립간시기 경주 평야에 만들어지던 시기의 무덤이 가장 크고, 법흥왕 이후 산지 <대릉원 일대 무덤 크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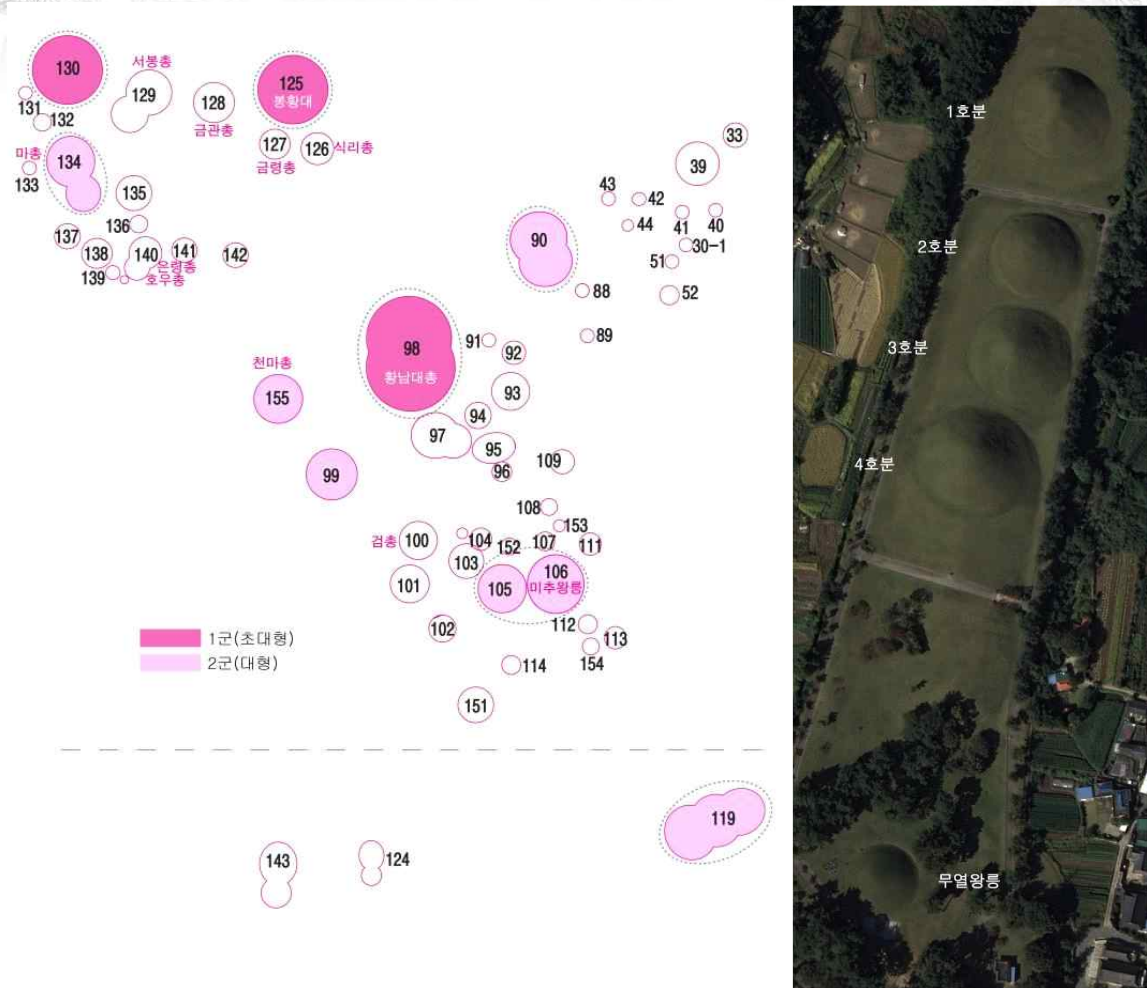
로 이동하면서 무덤(돌방무덤)이 축소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를 따르면 마립간시기의 다음 시기의 신라 중기의 왕릉군은 경주 평야 밖의 대형 무덤 중에 가장 큰 무덤이 후보가 된다. 그곳은 무열왕릉 뒤편에 있는 4기의 대형 무덤이다. 이 무덤 중 가장 큰 무덤은 4호로 지름이 60m 이상이다. 이곳에 묻힌 왕은 법흥왕, 진흥왕, 진지왕으로 추정된다. 4기 중 1기는 왕비의 무덤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다시 마립간 시기의 왕릉을 추정해보면 법흥왕 이전인 마립간 시기의 왕릉은 서악동 무덤군보다 큰 무덤일 가능성이 크며 대형 합장분 3기(98호 황남대총, 90호, 134호), 초대형 무덤인 125호(봉황대), 130호(서봉황대), 그리고 106호(전 미추왕릉)·105호를 유력한 왕(비)릉으로 생각된다. 만약 125호분과 130호분 중에 왕비릉이 있다면 차순위에서 1기의 왕릉을 추가로 찾아야 하며 그 후보로 119호분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금관이 출토된 무덤인 127호분(금령총), 128호분(금관총), 129호분(서봉총), 155호분(천마총)은 왕(비)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진평왕은 서악동을 벗어난 무덤 중에 가장 큰 무덤인 전진평왕릉(37.9m)으로 추측한다. 선덕여왕릉은 현재 비정된 능으로 생각하는게 일반적이고 진덕여왕릉은 마땅한 후보가 없다.

무덤명	그룹	장축(m)	서악동고분군	
125호(봉황대)	1	82.3	서악4호	62.9
98호(남분)	1	76.0		
98호(북분)	1	76.0		
130호(서봉황대)	1	74.6		
90호(북분)	2	56.5		
106호(전 미추왕릉)	2	56.1		
90호(남분)	2	54.3		
134호(북분)	2	54.1		
119호(서분)	2	53.7		
99호	2	51.2		
105호	2	51.0	서악3호	50.3
155호(천마총)	2	49.6		
119호(중분)	2	48.9		
129호(북 서봉총)	3	46.1	서악2호	46.2
97호(서분)	3	45.5	서악1호	46.0
100호(검총)	3	44.3	무열왕릉	34.1
134호(남분)	3	44.0		
102호	3	43.5		
144호	3	43.3		
119호(동분)	3	42.3		
39호	3	41.2		
93호(동분)	3	40.0		
135호	3	38.8		
143호(북분)	3	38.7		
101호	3	38.3		
97호(동분)	3	38.0		
95호	3	37.6		
103호	3	36.9		
143호(남분)	3	36.5		
129호(남 데이빗)	3	36.1		
오릉1	3	35.3		
오릉3	3	35.3		
93호(서분)	3	34.1		
145호	3	33.3		
118호	3	33.3		

<좌: 신라 전기 왕릉의 추정(대릉원 일대) / 우: 신라 중기 왕릉 추정(서악동 고분)>



후기의 무덤은 십이지가 호석에 배치된 무덤이다. 처음에는 토우 형태의 조그만 십이지상이 무덤 내부에 부장되거나 무덤 주위의 땅 속에 묻혀 방위신으로서의 성격을 띠게 된다. 그러다가 십이지가 능을 지키는 수호신의 성격으로 확립되면서 신장상의 모습으로 무덤 둘레의 호석護石에 직접 조각되는데 평복平服과 갑옷을 걸친 두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십이지상이 조각되어 있는 무덤은 대체로 왕릉 내지 그에 버금가는 무덤이다. 대표적인 무덤이 앞서 설명한 흥덕왕릉과 개릉이다. 십이지가 있는 무덤은 현재 총 10기가 존재한다. 이외에 전체 모습을 알 수 없지만 능지탑과 황복사지 인근에서 발견된 십이지 호석도 다른 무덤의 십이지로 보이며, 이를 고려하면 십이지 호석이 있는 무덤은 대략 현재 12~13기가 남아 있는 것이다.

제612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8년 11월 7일)

휴게공간에서 만나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

-빗살무늬 토기와 김혜련 작가-

양승미 | 2층 이홍근 기증실 옆 휴게공간 | 19:00~19:30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실 2층 휴게공간에서는 ‘예술과 암호(Art and Code): 한국 선사미술의 암호: 빗살무늬’라는 주제로 한국의 전통 유물을 재해석한 현대작가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이번에 전시된 작품은 김혜련 작가의 <나의 신석기>, <신발과 암호>, 그리고 신석기 빗살무늬 토기 한 점이다.

김혜련 작가는 국내에서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양화과 미술이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베를린에서 회화와 실기전공으로 유학생생활을 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분단국가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김혜련 작가는 분단의 현실을 반영한 작품들을 선보이기도 했다.

김혜련 작가는 강렬한 색채와 먹을 이용한 독창적인 붓질로 추상과 구상의 경계를 오가는 작품을 선보이면서, 대상을 단순히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본질을 찾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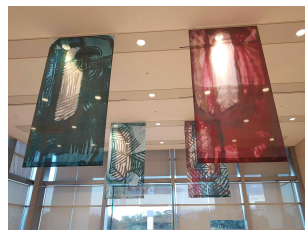
<나의 신석기>는 김혜련 작가가 신석기 빗살무늬 토기의 선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작품으로, 100개의 캔버스 안에서 조형적으로 재구성된 토기의 문양들이 마치 벽화처럼 한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정제되어 그려진 목직 한 선과 문양의 조화는 선사시대 한국미술사의 포문을 여는 암호의 재현이다.

<신발과 암호>는 6개의 면천에 먹과 잉크로 채색한 작품으로 김혜련 작가가 색채와 선을 조화시키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 백제 무령왕릉의 신발에서 영감을 받은 신발모양을 바탕으로 기와와 토기의 문양을 그린 다채로운 선긋기를 강렬한 추상화로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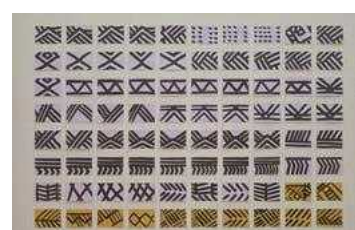
수천 년 역사 속 예술적 암호들을 선과 색의 조형적 감각으로 풀어낸 김혜련 작가의 작품은 한국미술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관람객에게 전하고 있다.



<빗살무늬토기>, 신석기, 암사동 출토, 토제(연질)



김혜련, <신발과 암호>, 면천에 먹과 잉크, 2018



김혜련, <나의 신석기>, 종이에 먹, 2018